

Jan  
2019

# KEB Hana Market Monthly

- ▶ 연구위원 서정훈  
02. 729. 0195 / seojh@hanafn.com
- ▶ 연구원 박정온  
02. 729. 0190 / jungeunpark@hanafn.com



...to facts might tempt a  
...investor to hang in with  
...by buying Rosneft's shares.  
...and a fourth fact: these  
...es trade below book val  
...two times Rosneft's in  
...and gas reserves (Exxor  
...17 times). About \$14bn  
...coming due this year, \$1  
...next. Rosneft may pay it  
...continuing to sell its oil -  
...dollars. Sanctions still allow  
...access to US dollar clearing.

...the maker of  
...Come Dine  
...y that it is an  
...attractive move.  
...ion is not the biggest  
...JP Morgan estim  
...account for 24 percent of  
...this year. But Lib  
...best  
...s an owner and c

...the balance of ITV in the next six  
...months but it could come back late  
...Yes, there are financial constraints -  
...the rest of ITV would cost £7.4bn at  
...today's price and Nomura estimates  
...that by the end of 2014 Liberty's net  
...debt will be a hefty 5 times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



Jan  
2019

## 목 차

금리 -----	03
달러/원 환율 -----	05
엔/원 환율 -----	07
유로/원 환율 -----	08
주요 국내경제 지표 -----	09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	09



[www.kebhana.com](http://www.kebhana.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 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금 리

**12월 동향** 12월 FOMC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되었으나 효과는 단기에 그친 가운데, 오히려 미-중 무역분쟁 이슈,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며 하락

월초, 전월 연준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영향 속 마-중 무역갈등 재점화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

- 12월 초반, 연준의 비둘기적 발언 영향 속에 하락 출발 후, 미 경기둔화 우려와 미-중 무역갈등 이슈 부각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되며 하락 지속
  - 월초, 전월말 연준의장의 중립금리 관련 비둘기파적 발언 영향으로 하락 출발
  - 이어 중국 통신업체 임원 체포 소식에 따른 미-중 무역분쟁 불씨 지속과 미국채 금리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추세 지속

중반, 마-중 무역분쟁 이슈 및 국내 경기 불확실성 지속 연준 회의의 비둘기적 성향 전환 기대 등으로 급락

- 12월 중반, 미-중 무역분쟁 잠정 중단에도 중국 통신업체 이슈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경기 불확실성과 수급상 국고채 공급 감소 등으로 급락 지속
  - 12월 중반, 미국의 중국 통신업체 관련 무역갈등 이슈가 지속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에 영향
  - 여기에 국내 경기 불확실성 관련 뉴스와 국고채 바이백 물량 증가에 따른 수요 우위 영향 및 FOMC 회의 경계감 등이 혼재하며 급락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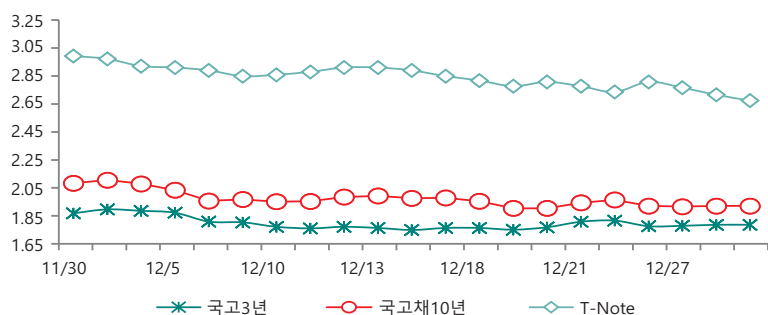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인상 단행되었으나 단기적 효과에 그침

- 12월 후반, 연준 금리인상의 단기적 효과가 반영되며 상승 전환 후, 연준의장 해임설과 미 연방정부 섰다운 우려 등으로 재차 하락 흐름 시현
  - 12월 후반, FOMC회의에서 연내 마지막 금리인상의 단기적 영향이 반영되며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영향 등으로 일시적 상승 전환
  - 그러나 곧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과의 갈등 속에 연방정부 섰다운 우려까지 겹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확대되며 하락세 마감

## 12월 평균

국고채(3년): 1.82%  
 국고채(10년): 1.99%  
 T-Note(10년): 2.84%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 1월 전망 국내외 경기 둔화 현실화 가능성 속에 글로벌 증시 변동성 증대 등으로 국내외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 전환 가능성 확대되며 국고채 금리 소폭 하락압력을 받을 전망

평균	2018. 4Q	2019. 1Q <sup>F</sup>	2019. 2Q <sup>F</sup>	2019. 3Q <sup>F</sup>
국고채(3년, %)	1.97	1.85	1.90	1.95

- 전월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이후 뉴욕증시의 성장 모멘텀 한계 속에 약세 조정 진입과 국제유가 급락 등에 따라 1분기 중 금리인상에 상당히 신중할 것으로 보임
  - 전월 미 금리인상 후, 미국 최근 경기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추이를 보이며 경제 둔화가 뉴욕증시 성장 모멘텀 약화로 전이되는 가운데 변동성 확대가 예상
  - 여기에 국제유가 급락이 인플레이 압력을 완화하는 영향 속에 연준 통화정책이 점도표 상 금년 2회 인상 예정에도 1분기는 금리인상이 제한될 것이란 점이 국내외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뉴욕증시 약세장 진입 및 국제유가 급락 속 미국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연준의 상반기중 긴축 통화정책 약화 가능성 점증

- 글로벌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속에 국내 경제도 수출증가율 하락 및 인플레이 압력 약화 등의 부진 지속 가능성이 국고채금리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OECD 경기선행지수가 99로 '12.9월 이후 최저치 기록하며 세계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 여기에 국내 12월 물가지표가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월대비 -0.3%를 기록한 가운데 전월 수출증가율도 -1.2% 마이너스 전환. 내수 및 수출 측면에서 경기부진 상황이 반영되고 있는 점도 국고채 금리의 점진적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

전월 국내 수출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의 전월대비 마이너스 기록 등 전반적 국내 경기 부진 지속

- 수급상 초장기 국고채 발행에 따른 공급 우위가 금리하단을 제한하겠으나, 상존한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통화정책 완화 기대 등이 전반적 금리 하락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국고채 초장기물 발행 계획에 따른 공급 우위 영향은 금리 하단 제한 요인
  - 그러나 대내외적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속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국내외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 등이 국고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

1월 국고채(3년) 금리는 1.75%~1.90% 범위 예상

상승 요인	하락 요인
· 수급상 국고채 장기물 공급 확대 가능성	· 연준의 상반기 중 긴축 약화 가능성 · 국내 주요 경제지표 부진 ·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빠르게 평탄화 되는 수익률 곡선

# 달러/원 환율

**12월 동향** 주요국 경기 부진 등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쳤으나, 완화적 스탠스로 인식된 FOMC 결과 및 연말 달러 수급 우위 영향으로 1,110원 중반까지 하락

월 초,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채 금리 변동성 확대가 뉴욕증시로 전이되며 1,120원대 전후 등락

주요국 경기 및 브렉시트 이슈로 1,130원대 상승 후 다소 비둘기적이었던 FOMC 결과로 1,120원대 후반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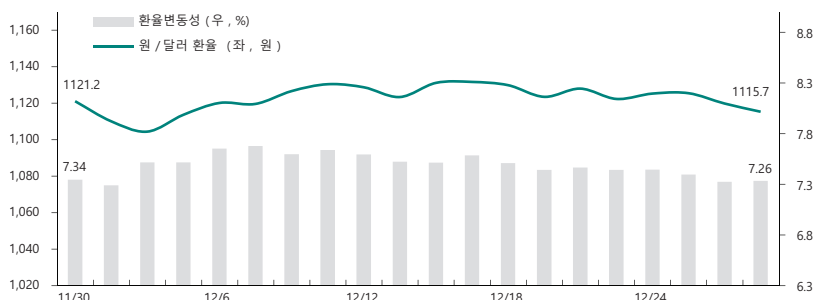
국내 경기 둔화 우려에도 견조한 수출 경기 등으로 연말 네고 물량 확대되며 1,110원대 중반까지 하락하며 마감

- 12월 초, 미-중 무역분쟁 잠정중단에 따른 위안화 강세 연동 후, 미국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의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위험회피 심리 강화
  - 12월 초, 미-중 무역분쟁 잠정 중단으로 1,110원대까지 하락한 이후 중국 통신업체 CFO 체포 소식에 미-중 무역갈등 우려 재발하며 상승 전환
  - 미국채 스프레드 역전 현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뉴욕증시 변동성을 확대하며 환율은 1,120원대 상승 회귀
- 12월 중반, 브렉시트 이슈, 미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미국 및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1,130원대까지 상승 후 FOMC 금리인상 반영 속 1,120원대 후반 등락
  - 12월 중반, 브렉시트 이슈가 주요하게 환율 등락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미-중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시키며 1,130원대 상승
  - 이후 FOMC 금리인상 후 점도표 하향에 따라 시장이 다소 비둘기적으로 평가하면서 1,120원대 후반 등락 시현
- 12월 후반, 미국 경기 이슈 지속하는 가운데 연방정부 섣다운 우려가 겹치며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었으나, 연말 뉴욕증시 상승세 전환 속 국내 수출경기를 반영한 달러 매도 확대 등으로 1,110원 중반까지 하락하며 마감
  - 12월 후반, 미국 경기 둔화 이슈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연방정부 섣다운 우려 및 연준과 행정부간 갈등까지 확대되며 위험회피심리 강화되는 양상
  - 그러나 미 행정부 · 연준과의 갈등 봉합 속 연말 뉴욕증시가 상승 전환한 가운데 국내 수출경기를 반영한 네고 물량 확대 등으로 크게 하락 전환하며 환율은 전월보다 5.5원 하락한 1,115.7원으로 마감

12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22.7원

12월말 달러/원 환율 : 1,115.7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자료: 연합인포맥스, KEB하나은행

**1월 전망** 전월 FOMC 결과에 따른 달러 강세 제한 속에 대외 경기 불확실성 점증과 상대적으로 둔화양상이 커지는 국내 경제 우려에 따른 외국인 투자 신뢰도 저하 등으로 환율 상승 예상

평균	2018. 4Q	2019. 1Q <sup>F</sup>	2019. 2Q <sup>F</sup>	2019. 3Q <sup>F</sup>
달러/원 환율(원)	1,027.8	1,130	1,125	1,135

- 전월 FOMC 금리인상 영향은 제한되는 가운데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글로벌 증시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며 오히려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전월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에도 2019년 점도표가 2회로 하향됨에 따라 시장의 예상보다 달러 강세가 제한되는 양상
  -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의 미국 경제 영향 및 최근 경기지표 둔화 등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를 견인하며 뉴욕증시 변동성을 확대하는 측면이 안전자산 선호를 확대하며 달러 강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임
- 대내적 2018년 무역수지 흑자 소식 등이 수급상 달러 공급 우위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전히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국내 2018년도 무역수지 흑자가 704억달러로 호조세를 이어간 가운데 이는 연초 달러 공급 우위를 점하게 하며 대외리스크에 따른 원화 약세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그러나 국내 물가지수 하락 추세 지속 등 경기지표 둔화로 국내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원화 약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무역분쟁 이슈 관련, 미국의 대중국 공세는 유효하지만 현 잠정 휴지기 속에 위안화의 큰 폭 약세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원화 약세 제한 요인
  - 미-중 무역갈등은 휴전 상태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일시적 공세는 유효해 보이며, 이에 대응해 중국도 미국의 일시적 공세시기를 제외하고는 위안화 강세 유도에 다소 중점을 둘 수 있는 점이 원화 약세를 제한할 전망
  - 여기에 미 연방정부 셋다운 이슈가 조기에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 최근 대외 불확실성과 결합하며 안전자산선호에 보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율은 1,120~1,135원 범위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

FOMC 금리인상 영향 제한 속 미국경기 둔화 우려가 뉴욕증시 변동성 확대로 전이되며 안전자산 선호 강화를 견인할 전망

전년도 경상수지 최대 흑자 소식에도 국내 경제의 하방리스크 확대가 외국인 투자 신뢰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1월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20원~1,135원 전망

상승 요인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중국 등 경기둔화 우려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선호 강화</li> <li>·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준의 12월 금리인상 효과 제한</li> <li>· 2018년 경상수지 흑자 호조</li> <li>· 위안화 약세 제한</li> </ul>

# 엔/원 환율

## 12월 동향 미국 장단기 금리역전에 따른 향후 경기 둔화 우려 및 연준의 금리인상 조기 종료 가능성, 글로벌 증시 하락, 미 연방정부 섯다운 등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따른 엔화 강세에 달러/엔 4개월만에 110엔대 하회

엔/원 환율 전월대비 40원 상승한 1,016.7원에 마감

-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및 미국 예산안 미확정에 따른 연방정부 폐쇄 등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에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강화되며 엔/원 환율 상승
  - 월 초, 미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둔화 전망으로 인한 향후 경기 둔화 우려가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강화시켜 엔/원 환율 상승
  - 월 중반,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상에 대한 부정적 발언 및 12월 FOMC에서의 내년 금리인상 전망 하향조정 영향이 경기 둔화 우려 자극함에 따라 환율 추가 상승
  - 월 후반, 미 연방정부 섯다운, 백악관의 파월 의장 해임 논란 등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으로 엔/원 환율 1,020원 상회 후 다소 진정하며 마감

## 1월 전망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 그에 따른 글로벌 증시 불안 등의 영향으로 강화된 안전자산 선호가 달러/엔 하락, 엔/원 상승 견인 예상

달러/엔 제한적 하락 전망

- 달러 약세 및 안전자산 선호가 달러/엔 환율 하락을 견인하는 가운데 미국 섯다운 리스크 해소 전망이 이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
  -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전망에 따른 달러 약세와 미국발 경기 둔화 우려 속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달러/엔 환율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12월 후반 환율 하락을 견인했던 미국 연방정부 폐쇄 리스크 해소가 달러/엔 환율 하락은 제한될 전망

높은 수준의 엔/원 유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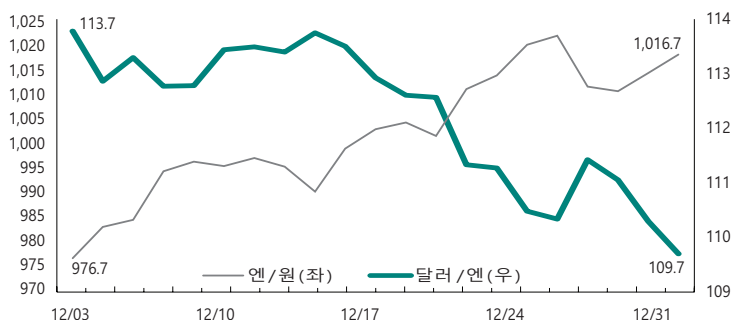
- 엔/원 환율은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강화 영향으로 높은 수준 유지할 전망
  -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및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시킴에 따라 엔/원 환율 상승 전망. 가파른 상승 이후 되돌림 가능하나 다수의 리스크 요인이 해소되지 못하고 높은 수준의 엔/원 이어질 전망
  - 한국 경기 둔화 우려 또한 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12월 달러/엔 평균환율 : 112.2엔

12월 엔/원 평균환율 : 1,001.2원

1월 엔/원 예상 범위 : 1,010원~1,060원

엔/원 및 달러/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 유로/원 환율

**12월 동향** 월 초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원화 약세 심화시킨 영향으로 유로/원 환율 상승했으나 월말로 가면서 네고물량 출회 영향으로 상승폭 축소

- 유로/원 환율은 미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원화 약세로 큰 폭 상승 후 등락 시현하다 월말 수출 네고 물량에 따른 원화 강세전환으로 하락 마감
  - 월 초, 프랑스 재정문제 및 브렉시트 불확실성에도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원화 약세 심화가 1,290원에 육박하는 유로/원 상승 견인
  - 월 중반, 미국발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ECB 드라기 총재의 유로존 경기 둔화 메시지와 이탈리아 예산안 합의 소식 등이 전해짐에 따라 유로/원은 높은 수준에서 등락 시현
  - 월 후반, 미국 연방정부 폐쇄 및 파월의장 해임 우려에 따른 상대적 유로 강세에도 불구하고 연말 수출 네고 물량 출회에 따른 원화 강세가 두드러지며 유로/원 환율 하락전환환율 하락 시현

유로/원 환율 전월대비 6.8원 상승한 1,270.1원에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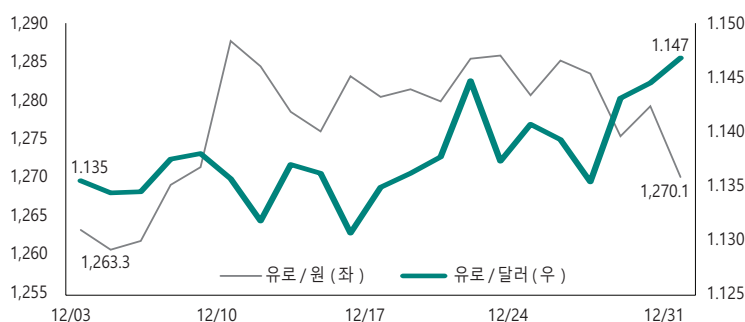
**1월 전망**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유로/달러 하락 우위 전망. 유로/원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원화의 약세 전망으로 상승 예상

- 글로벌 주가 급락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유로/달러 하락 견인 전망
  - 미국 주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유로/달러의 큰 폭 하락 견인,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 부결 가능성 또한 유로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 전망
  - 다만, 금융시장 불안 완화시 미국 경기 둔화 우려, ECB의 QE 종료 및 이탈리아 재정 불확실성 해소 등에 환율 상승전환 시도 예상
- 유로/원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원화 약세 심화 영향으로 상승 전망
  -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취약한 원화가 약세 강화되며 유로/원 환율 상승 시현 예상
  - 그러나 유로화 또한 안전자산 선호 영향으로 약세 예상됨에 따라 유로/원 환율은 제한적 상승을 전망함

유로/달러 환율의 하락 우위 전망

유로/원 환율 상승 후 상승 전망

유로/원 및 유로/달러 환율 추이



12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38달러

12월 유로/원 평균환율 : 1,277.2원

1월 유로/원 예상 범위 : 1,265원~1,310원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순환변동치, %

항 목	2017년	2018년				
	연간	2/4	3/4	10월	11월	12월
전 산업 생산	2.3	1.2 [0.8]	-0.8 [0.2]	6.9 [0.8]	0.2 [-0.7]	
제조업	1.6	0.5 [3.0]	-2.3 [0.3]	11.2 [1.1]	0.1 [-1.9]	
서비스업 생산	1.9	2.3 [0.2]	0.8 [0.1]	5.6 [0.6]	1.0 [-0.2]	
소매판매액	1.9	4.7	3.9	5.1	1.0	
설비투자	14.1	-5.9	-13.6	9.4	-10.0	
건건설기성액	10.1	-3.4	-9.8	-3.1	-10.6	
경기선행지수	-	-	-	98.8	98.6	
실업률 (%)	3.7	3.9	3.8	3.5	3.2	
소비자물가 상승률	-	-	-	2.0 [-0.7]	1.3 [-0.3]	
경상수지 (억달러)	-	-	-	91,903		
상품수지 (억달러)	-	-	-	109,970		
수출증감률(통관기준)	-	-	-	22.7	4.5	-1.2
수입증감률(통관기준)	-	-	-	27.9	11.4	0.9
금리(국고채3년, 월평균)	-			2,008	1,938	1,827
KOSPI (월말)	-			2,014.7	2,096.9	2,041.0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증권거래소

##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단위: 원

	2018.7	2018.8	2018.9	2018.10	2018.11	2018.12
미국 USD	1,118.7	1,112.9	1,109.3	1,139.9	1,120.8	1,115.9
일본 JPY(100)	997.6	1,003.3	976.0	1,010.2	987.5	1,016.7
유로 EUR	1,308.6	1,300.4	1,291.3	1,291.1	1,275.8	1,270.1
영국 GBP	1,461.1	1,445.4	1,446.8	1,458.2	1,428.6	1,421.8
중국 CNH	164.2	162.7	161.1	163.4	161.5	162.4

주 : CNH는 서울외환시장 월말 종가 기준, 그 외 통화의 대원화 환율은 뉴욕시장 월말 종가 기준  
 자료 :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19.1월)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b>1</b>	<b>2</b>	<b>3</b>	<b>4</b>	<b>5</b>
		<p>한 12월 무역수지(\$5,100M) -수출/수입(4.5%/11.4%, YoY)</p> <p>중 12월 Caixin 제조업PMI(50.2) 12월 Markit 제조업 PMI[F](51.4) 독 12월 Markit 제조업 PMI[F](51.5) 미 11월 Markit 제조업PMI(53.9)</p>	<p>중 12월 CPI/PPI(2.2%/2.7%, YoY) 유 11월 실업률(8.1%)</p> <p>Fed's Bostic Speaks in Chattanooga on Economic Outlook Fed's Rosengren Speaks on the Economic Outlook FOMC 12월 의사록</p>	<p>미 12월 ISM 제조업지수(59.3) 12월 건설지출(-0.1%, MoM)</p>	<p>중 12월 Caixin 서비스/종합 PMI(53.8/51.9) 유 11월 유로존 PPI (0.8% MoM, 4.9% YoY) 12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F](51.4/51.3) 독 12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F](52.5/52.2) 미 11월 고용통계 -실업률(3.7%) -비농업부문고용자수변동(68k) -시간당평균임금(0.2%, MoM)</p> <p>Fed Chair Powell plus Bernanke and Yellen Interviewed at AEA Fed's Bostic Speaks at AEA in Atlanta</p> <p>전미경제학회(~6)</p>	<p>Fed's Bostic Speaks on Future of Traditional Banking at AEA</p>
<b>6</b>	<b>7</b>	<b>8</b>	<b>9</b>	<b>10</b>	<b>11</b>	<b>12</b>
	<p>중 12월 외환보유고(\$306.7B) 12월 무역수지(\$44.74) -수출/수입(5.4%/3.0% YoY) 독 11월 공장수주(0.3%, MoM) 미 11월 제조업수주[F](-2.1%) 내구재 주문[F](0.8%)</p> <p>Fed's Bostic Speaks to Rotary Club in Atlanta</p>	<p>일 소비자자기대지수(42.9) 유 12월 소비자자기대지수[F](-6.2) 미 11월 무역수지(-\$55.5B) 11월 소비자신용지수(\$25,384B)</p> <p>CES 2019(~11)</p>		<p>중 11월 도매재고[F]</p> <p>Fed's Bullard Speaks on Economy and Monetary Policy</p>	<p>호 11월 소매판매(0.3%, MoM) 일 11월 경상수지(¥1,309.9B) 미 12월 CPI/Core(0.0%/0.2%, MoM) (2.2%/2.2%, YoY) 12월 재정수지(-\$204.9B)</p>	
<b>13</b>	<b>14</b>	<b>15</b>	<b>16</b>	<b>17</b>	<b>18</b>	<b>19</b>
	<p>일 11월 유로존 산업생산 [SA](0.2%, MoM)</p>	<p>중 12월 광공업생산(5.4%, YoY) 미 12월 PPI/Core(0.3%/0.3%, MoM) (2.7%/2.8%, YoY)</p> <p>Fed's George Speaks on Economy and Monetary Policy Outlook</p>	<p>일 11월 핵심가계수주(7.6% MoM) 12월 PPI(2.3% YoY) 독 12월 CPI[F] 미 12월 수출/수입물가 (-0.9%/-1.6%, MoM) 12월 소매판매(0.2%, MoM)</p> <p>Fed's Kashkari Speaks on Panel About Financial Crisis</p>	<p>유 12월 유로존 CPI (-0.2% MoM, 1.9% YoY) 미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전망(94)</p>	<p>일 11월 광공업생산 [F] 12월 CPI(0.8% YoY) 미 2월 광공업생산(0.6% MoM) 1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98.3)</p>	
<b>20</b>	<b>21</b>	<b>22</b>	<b>23</b>	<b>24</b>	<b>25</b>	<b>26</b>
		<p>미 12월 기준주택매매 (5,32M, 1.9% MoM)</p> <p>세계경제포럼(~25)</p>	<p>일 BOJ 기준금리(-0.10%) 12월 무역수지(-¥737.3B) -수출/수입(0.1%/12.5%, YoY) 미 1월 리치몬드연방 제조업지수</p>	<p>한 BOK 기준금리(1.75%) 유 ECB 기준금리(0.00%) 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 독 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 미 1월 Markit 서비스 PMI[F] 12월 경기선행지수(0.2%)</p>	<p>일 1월 도쿄 CPI 1월 IFO 기업황경지수 미 12월 내구재주문[F] 12월 신규주택매매</p>	
<b>27</b>	<b>28</b>	<b>29</b>	<b>30</b>	<b>31</b>		
	<p>미 12월 시카고연방 국가활동 지수 1월 말라스 연준 제조업지수</p>	<p>미 11월 S&amp;P/CS 20도시 주택가격 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자기대지수 12월 도매재고[F]</p>	<p>독 2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미 FED 기준금리(2.25~2.50%) 4Q GDP 연간화 QoQ[A](3.4%) 4Q GDP 물가지수[A](1.8%) 4Q 개인소비[A](3.5%)</p>	<p>일 12월 광공업생산[F] 유 12월 실업률(0.2%) 4Q GDP[A](0.2% QoQ, 1.6% YoY) 미 12월 개인소비지수(0.4%) 1월 시카고 구매자협회</p>		

\* 주 :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 )안은 이전치



## KEB Hana Market Monthly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KEB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FAX 729-019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KEB하나은행 외환포탈 ([www.kebhana.com](http://www.kebhana.com) → 외환포탈FXKEB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